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제2차 세계 대전 퇴역 군인을 위한 기념식과 함께 작전 기념일 75주년을 예우

2019년 6월 6일을 뉴욕주 "제2차 세계 대전 경례의 날"로 선포

뉴욕주 모든 퇴역 군인의 집에 거주하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 주지사의 작전 개시일 기념 선포를 환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총 5곳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을 포함하는 특별한 군 복무 기념행사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작전 개시일 및 군 역사상 최대의 수륙 공동 작전이었던 오버로드 작전의 75주년 기념일을 기리며 뉴욕 전역에 2019년 6월 6일을 "제2차 세계 대전 군 복무 경례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전 개시일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저는 모든 퇴역 군인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희생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군 복무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16만의 미국 장병과 동맹군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해 전세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 놓은 작전 개시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군 장병 여러분의 용기를 기념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께서 저와 함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날의 희생자들 및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퇴역 군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신세를 졌습니다."

오늘 몬트로즈에 위치한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서 연설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꾼 그 날을 기념하며 뉴욕주 전역의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경례를 보냅니다. 우리가 작전 개시일 75주년을 기념함에 따라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투에 참여한 90만 이상의 뉴욕 주민과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노르망디 해변을 기습했던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군을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병력으로 만들어주셨던 군 장병 여러분의 용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세대의 유산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며 그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Hochul 부지사는 뉴원저의 퍼플하트 박물관(Purple Heart Museum)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주 육해군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와 협력하여 2019년 6월 6일 오전 10시, 5곳의 시설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후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은 각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참여로 뉴욕주 공로 훈장을 수령하는 퇴역 군인들과 함께 미국 역사에서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주지사의 선포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 거주하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은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국장으로부터 그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수령했습니다.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국장 **Jim McDonoug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작전 개시일 75주년 기념일 행사는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생존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미국 청년들의 어깨에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청년들은 전 세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뉴욕이 지속하여 오늘날 우리와 같이 가장 위대한 세대를 인식하고 기리고 있음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미군 복무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개시일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영웅들을 지속하여 기리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고령 친화적 뉴욕(Age-Friendly New York)과 같은 계획 및 충분한 지원과 이해심이 가득한 환경을 갖춘 퇴역 군인의 집 4곳에서 보건부 운영을 통해 최신식의 고품질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세대가 지역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노후 시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에서는 우리의 자유와 전 세계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작전 개시일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용감한 군인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숭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을 기립니다. 우리의 퇴역 군인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세대의 일원입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미국에서 최초로 고령 친화적 주로써, 고령의 퇴역 군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이 선택한 집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퇴역 군인의 집 상임이사인 **Fred Sgang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스톤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에 위치한 뉴욕주 롱아일랜드 퇴역 군인의 집은 특별한 퇴역 군인 세대를 보살피는 영광과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군인과 선원, 해군, 공군의 이타적인 희생과 복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이 보여주셨던 불굴의 용기와 75년 전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답하며 보여주신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뉴욕주 부관 참모인 **Raymond Shields**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뉴욕주 방위군의 남녀 장병 여러분은 늘 75년 전 오마하 및 유타 해안을 기습했던 장병을 기억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었던 분들은 전 세계를 악랄한 독재의 손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오늘 복무하고 있는 저희 장병들은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무척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3백만이 넘는 장병들이 뉴욕항에서 해외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90만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전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획득하기 위해 맞서 싸웠습니다. 43,000의 뉴욕 주민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뉴욕주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Cuomo 주지사의 행정부 하에서,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은 뉴욕의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을 위해 27,000 건이 넘는 청구서를 제출하여 퇴역 군인에 대한 연방 정부 면세 복지 혜택으로 2억 5,4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복무 중 부상당한 퇴역 군인은 장애 보상을 위해 언제든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애는 퇴역 군인이 전쟁 포로(Prisoner of War)였던 이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퇴역 군인, 현역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무료 지원에 관해 알아보시려면 veterans.ny.gov를 방문하시거나 888-838-7697 번으로 전화하여 퇴역 군인 보훈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New York State Veterans' Homes)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서는 자격을 갖춘 퇴역 군인과 가족에게 숙련된 간호 서비스와 단기 재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살핌은 거주민 중심으로 개별화되어 있으며, 기억력 관리, 사회보장서비스, 여가 활동, 신체 및 직업적 치료 및 기타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세대의 퇴역 군인 여러분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동시에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서는 사생활을 보장하고 독립을 장려하며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하며, 다른 퇴역 군인 및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 높은 생활의 질을 제공합니다. 보건부가 운영하는 뉴욕주 퇴역 군인의 집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위치한 뉴욕주 롱아일랜드 퇴역 군인의 집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예로운 뉴욕주 군의 역사

의사당 방문객들은 베트남 추모 미술관(Vietnam Memorial Gallery)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콤플렉스(Empire State Plaza Complex) 전체에 위치한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한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관들에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 관한 정보는 <https://vietnamgallery.ogs.ny.gov/> 및 <https://ogs.ny.gov/ESP/ct/memorials/>의 추모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